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정의당과 공조

“주가 조작·코바나 협찬 의혹” 與 “이 대표 수습용...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의당과의 공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다.

권혁기 원내대표 정부조정실장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게 있고, 이번

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2건에 대해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 중 통정·가장 매매 등 불법 시세 조종행위 등이다.

또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이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포함된다.

특검 임명(1명) 절차의 경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 의뢰해야 하고, 해당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의당은 이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 면죄부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며 “특검이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가리기 위한 후안무치한 몰타기용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 대표 방탄을 서둘러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사업 선정

3년간 국비 42억원 확보 SW·AI 교육환경 조성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42억원을 지원받는다.

SW 미래채움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교육거점센터 구축 △전문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양질의 SW·AI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광주시교육청·(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유메이커스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4억원을 투입, SW·AI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남구 진월동 옛 광주과학고등학교에 SW·AI 교육 거점센터를 구축, 지

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로봇·IoT(사물인터넷)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자·퇴직자 등 210명(연간 70명)을 SW·AI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이들을 교육지도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SW·AI 교육환경 조성, 지역 우수인재를 활용한 SW교육 전문강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SW·AI 교육인프라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산업 수요에 대응, 인재양성 성장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캠퍼스에 활짝 핀 목련

광주지역 낮 기온이 23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9일 전남대 교정에서 대학생들이 활짝 핀 목련 꽃길을 거닐며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 동부권에 친환경 병원선 뜬다

부산서 ‘전남511호’ 진수식 동부권 섬 주민 건강증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전남도는 9일 부산 강남조선소 선대에서 전남 동부권 섬 주민 건강을 책임질 친환경 병원선 ‘전남511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사진)

현재 공정률은 88%로 건조 후 각종 장비 운용과 시운전을 거쳐 6월 인도되면 동부권 5개 시·군 77개 섬 주민 건강증진과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정병태 강남조선소 사업본부장, 이동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장, 조성진 국동선박설계 대표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511호’ 건조에는 국비 85억원을 포함해 총 127억원을 투입했다.

전장 49m, 폭 9.5m, 깊이 3.3m, 380t 규모로 승선인원은 48명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560마일(901.2km)이다.

이 선박은 섬 지역의 낮은 수심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화적 전기복합추진장비를 탑재해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안에는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춘다.

특히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하도록 기존 병원선보다 3노트 증가한 최고 18노트(시속 33km)의 속도로 운항하도록 건조해 섬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새로 건조하는 전남511호 병원선이 취항하면 도내 취약지 섬 주민의 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병원선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지 섬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 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 병원선 2척을 여수권(전남511호)과 목포권(전남512호)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병원선은 11개 시·군 167개 섬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섬 주민 2만 5000여명을 진료했다.

최항지 기자

챗GPT로 쓴 취임사... 김준하 AI사업단장 특별한 취임식

AI사업 직무 계획 및 비전 발표 “세계 주목하는 ‘AI-밸리’ 조성”

김준하(52)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이 9일 최근 전 세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오픈 AI대화형 챗봇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된 취임사를 발표한 데 이어, AI사업단 직무 계획·직무비전 등을 직원들에게 발표하는 형태로 이례적인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

김 단장은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한 취임사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AI산업융합 실증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속도를 높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챗 GPT’ 신드롬 관련 최근 국내외 동향과 함께 인공지능산업 직무 계획 및 사업단 직무 비전을 면접관에게 발표하듯,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며 사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광주에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



계를 확산시켜 세계가 주목하는 ‘AI-밸리’를 조성하겠다”며 “AI 스타트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해 관련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AI 인한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AI 전문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단 법인 전환과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 부서별, 직급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삶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단장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최종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환경친화형 축산’ 집중 육성... 3023억 투입

전남도가 환경친화 축산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3023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올해 ‘스마트 축산 기반 확대’, ‘탄소중립 축산 환경 조성’, ‘조사료 생산·축산물 품질 고급화’, ‘경영안정·미래 성장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과제 8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축산 기반 확대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57억원, 축산 정보통신 기술(ICT) 융복합 사업 110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 등 8개 사업에 523억원을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 실천과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90억원, 공동자원화시설 69억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79억원 등 14개 사업에 412억원을 투입한다.

사료값 인상과 한우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항지 기자